

<2019년 2월 24일 주일말씀>

이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하면, 표적의 역사다

본 문 누가복음 7장 32절, 11장 23절, 마가복음 9장 23절

『 눅7:32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눅11:23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헤치는 자니라
막 9:23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

<1부 말씀 시작>

시대 말씀을 하나님께서 시대 메시아를 보내서 말씀을 주시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말씀대로 뜻을 이룹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지고 목적도알고 뜻도알고 메시아도 알아보게 되고

그 말씀을통해 변화를 이루죠.

알라고, 깨달으라고, 믿으라고. 믿어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 믿고 따라가야합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이 시대 말씀을 주었으면 따르라! 따라 와라!

예수님도 정말 많이 하신 말씀이 “내게로 오라!”

구원자만 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왜? 맞으니까! 따라와야 구원이있고 휴거가 있으니까.

사망의 길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길이니, 따라오라!

시대 말씀을 주었으니 따르면 표적의 역사다!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제일 큼니다.

그 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입니다.

시대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은 그 대가는 어마어마한 것으로 갚아줍니다.

여러분도 시대 말씀을 듣고 가만히있었으면 사망의 세계입니다.

여러분들이 따랐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서 함께 역사를 편것입니다.

시대 말씀을 들으니까 어려움도 있고 풍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따랐기에 주와함께 영광의 자리에 있게 되었습니다.

어제 콘서트도 따랐으니 참여한것입니다.

안따라왔으면 이와같은 역사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탄이 최고로 방해하는 것, 악평자를 통해 최고로 방해하는 것은 무엇이나, 따르지 못하게 하는것입니다.

어떤사람은 “다 아니야!” 이라고 나가는 사람이 없어요.

“말씀은 맞는데, 못따라가겠어.”

신입생들도 “말씀은 맞는데, 내가 감당이 안돼”

휴거때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드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너무 유혹이 많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따르는 것이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여기 신입생, 현장에만 150명이고 각 교회 많은 신입생이 있을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따른다면 즉시 표적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따르지 않는다면 역사는 즉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날 불러줘요라는 찬양이 있죠.

저는 이 찬양은 역대 우리의 마음과 심정을 표현한거예요.

그렇게 어려운 환란 모진 눈보라 이상세계 다시 볼수있을까?

주님 다시 볼수있을까 했는데 요렇게 역사가 뒤집어줄이야.

정말로 몰랐어요. 하나님 역시 전지전능 무소부재.

주님 역시 그 능력 끝까지 끈질긴 그 모습이 한마디로 주님 진짜 멋있다.
믿고 끝까지 따른 그 모습이 행함이 너무너무 잘하였다.
그렇게 잘하지 않았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반대하고 수많은 핍박이있었지만,
끈질기게 행하신 주님의 모습이 너무 멋있고 끝까지 따르니까
너무 기쁘다. 너무 잘했다.

제가 제 인생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 믿고 따르길 잘했다.
그냥 놀고먹고 따르지 않고, 열심히 수고하고 몸부림치고,
조금 잠도 못자고 힘들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열심히 행하며 수고하며 행한 것이 잘했다.

이 두가지 고백을 안할 수가 없습니다.
따르는 자들이 산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되었지요? 내가 살아있음을 어떻게 확인할까요?
내가 주를 따르고 있으면 산것입니다.

만일 따르지 않았으면 역사의 산자가 아니라 죽은자가 되었을것입니다.
구시대 사람들이 “이 역사 외에 더 없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육신 맞고 부활되어서 끝나는 것이다”
이것은 마치 초등학교 1학년이 “이제는 더 없다. 1학년 끝났는데
뭘 더 배우냐. 우리가 나가서 배우자. 우리가 하자” 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배울 것 이 많고 뜻을 펼 것 이 많습니다.

더 이상 없다 하는 것은, 마지막 역사, 끝에,
하나님 창조목적 휴거 역사를 이룬 자들,

이런 역사만 할 수 있는 말입니다. 더 이상은 없어요.
이 역사 이상은 더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끝까지 따르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귀한 생명들 따라올 수 있도록
이 역사 창대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입니다.

믿고 따른 것이 최고로 잘합니다.
따름에 있어서는, 믿음만, 소망만 있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와 뜻과 말씀, 모든 것이 다 뭉쳐져서
이루어진 것 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말씀을 믿고 따른 것이 최고로 잘한것이니,
끝까지 주를 믿고 따르며 끝까지 주의 상대체가 되어서
귀한 역사 이루시기를 진실로 기도드립니다.

이시대 말씀을 믿고 따르면 표적의 역사다.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와같은 역사 한사람도
빠짐없이 일어날줄 믿습니다. 성령께서는 감동을 주실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전해주시길 선생님 단상에 모실 때
할렐루야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2부 말씀 시작>

지난 해외에 있으면 참 복잡했어요.
미국가면 미국 시간 맞춰서 돌아가고, 아시아도 시간차이가 있고,
싱가폴쪽 가도 시간차이가 있더라고. 그래도 아시아는 비등비등해요.
유럽쪽에는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라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참 직접 듣게된 것이 참 좋고, 또하나 좋은 것은,
여기서 직접 생방송으로 듣게된게 좋아요.
이런 것은 가끔 한번씩 있잖아요. 1년에 한번씩 있기 어렵잖아요?
큰교회는 두 번세번 가는 편이지만, 작은교회는 그렇지 않아서
아쉬움을 갖고있지만, 생방송은 직접 보는것과 같아요.

어제 콘서트는 시대 부활을 해서 그런 큰 모임을 갖게 되었고,
이런 기회로 많은 생명을 인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해서 하였고,
또 하나는 하나님 보낸자 시대 구원자가 왔으니,
이 엄청난 역사가 가니 빨리 뒷받침을 해주자 해서 했습니다.
안해주면 안해주는 대로 10명이면 10명 모아놓고 하고
20명이면 20명 모아놓고 해요. 그래도 역사는 가져요.
당세만 보고가는 것이 아니라, 천년 역사 보고 계속 가니까.

마치, 차가 있는데, KTX나 어떤 버스가 있으면,
떠나는 시점에는 아무도 안타고 운전수만 타요.
근데 가다보면 미어지지.
그렇듯 처음엔 하나님 보낸자 혼자 시작합니다.
그러다 하나타고 또하나 타고.
하나님 교회가 아니고 역사니까 교회가 세계적으로 번져나가는거예요.

어제는 이와같이 발판이 만들어진 상태에서 했지요.
대전지역도 있고 대구지역도 있고, 부산지역, 광주지역,
이런 지역들이 남아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할것인가 생각들을 해요.
어제 손님들이 많았는데, 일절 안만났어요. 가수도 왔어요.

교회다니는 가수가, 같이 기획사도 데리고 왔는데,

사방에 일어나는 콘서트를 다 봤는데, 이렇게 큰 콘서트 하는거
처음 봤대요. 이렇게 여러모로 다양하게 엄청나게 한 것은 처음봤대요.
헛바닥 흔들다가 몸을 흔들다고.
선생님 표현을 잘해요. 본대로 들은대로 그대로 표현하기 때문에 그래요.

동생이 가수니까 따라 왔는데, 자기는 기획사 대표예요.
웬만하면 기획사 대표니까 다른데 큰데 콘서트 다 봤는데,
이런데 큰데 처음 봤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 크게 했구나 알았어요.
우리는 몰라요. 도대체 무대 얼마나 컸냐니까, 무대 손 인원이 천명.
아직도 2천명 남았다고. 무대가 작아서 다 세울수가 없었다고.
구경꾼은 어떡하냐고. 모일 장소가 없다고.
올림픽 경기장, 축구장 이런곳에서는 음향장치 이런 것이 어렵지.

이런 얘기를 듣고서, 큰 계획을 누가 했냐고 그래서
조은목사가 있으면서 조은목사가 성령과 같이 했다고 그랬더니,
어떻게 이렇게 엄청난 것을 기획하냐고.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오늘 말씀 또 전해요. 어제는 콘서트를 했지요?
그렇게 크게도 잘하지만, 어디가든지 하나님 사람은
그만큼 능력을 발휘해요.

다음에 또 할때는 어떡하지요?
그림그리는것도 해볼까/ 계속 그러서 계속 매달아서 보여주게.
그러다가 다른거 또하지. 운동으로 보여주고. 날고기는 운동으로.
잘하는 것이 많지. 보통 가르쳐서 사람 구원시키러 보내겠어요?
15살때부터 했는데. 지금도 가르치고있는데.

사람이 알지 못하면 자기 애인이 떠내려가도 못건져요.

국가선수가 되려면 얼마나 전지훈련 시키는줄 알어?
그렇게해서 금메달 따게끔 가르치는데,
하나님 보낸자 보통 가르쳐서 보내겠어?
40년 가르쳤는데, 일부 가르쳐서 이만큼 한거여.

그거 다 내놓으려면 어떻게해야지요?
지구상에 다 믿어야돼. 그래야 다 나와. 맞지요?
이 그걸 못맞춰서. 아쉽다.
하나님의 시간을 대언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줘야돼요.

자, 본문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네.
오늘 새로운 사람 있잖아요? 그냥 들으면 돼 .내가 어렵게 얘기안해.
아주 여기의 병아리들. 유치원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내가 3시까지 해봤거든? 그때까지 안줄고, 고개를 끄덕여.
그정도니까 처음 교회 다녔어도 아무 어색한거 할거 없어요.

자, 여기보니까, 이런 말씀 있어요.
주제 말씀이 “이 시대 말씀을 믿고 행하면 표적의 역사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보내줍니다.
옛날만 보내고 지금 안보내요? 그러면 지금 역사 안피게?
그런데 앞서 말씀을 했지만, 구약에 있는 사람은
구약에서 다 끝난다고 했어요.

“초등학생이 역시 초등학교 다니면 끝났다!” 하는거랑 똑같아요.
중학교 또있고 고등학교 또 있고 대학교 또 있고 나중에 대학원있고
또 어디있죠? 직장가서 인생고부 또 하면서 생활하면서 하는거예요.
평생 죽을 때 까지 배운다는 말 들었지요?

배운거 써먹어야지 안 써먹으면 그냥 소모되는 것 입니다.

활동하고. 구약때 사람들은 구약에서 끝나는것이에요.
하나님 외에 누구를 더 믿냐고! 그렇게 생각했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외에 누가 또와? 그건 전혀 있을 수 없다
그렇게하면서 한거예요.
그말만 들으면 맞지만, 다른 사람말 들으면 또 달라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을 절대시 믿었어요.
구약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땅에 또 온다. 너희를 구원할 구세주를 보낸다” 그랬거든.
그걸 기다렸어요. 선지자들도 예언하고. 선지자들은 하나님 올줄알았어.
구세주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믿었으니까 하나님 올줄 알았어. 결
과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 온다고 한 그 말 주인공 이었어요.
구세주가 엄마 젓빨고 애기로 올줄 몰랐어.
그 메시아를 기독교 사람들 다 믿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사람들 정신, 영혼세계 그 혼들과 영이
실제로 어떤 모든 것을 남기려면 육신을 서야 남긴다니까.
육신을 쓰고 하지 않으려면 영만 활동하면 돼요.
육계의 세계에 남기려면 반드시 사람 쓰고 남겨요.
남자가 혼자 남자의 세계의 일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자녀를 낳으려면 여자를 써야된다니까.

그와같이, 하나님이 이 지구상에 어떤 실존적인 일을 하려면
육신을 쓰고 해요. 인생 자기 혼도 영도 육신을 쓰고 합니다. 맞지요?
어제는 노래로 지휘해줬는데, 말씀으로 오늘은 지휘해주겠어요.

콘서트도 더 어마어마하지만, 말씀이 더 어마어마하지요?
나는 40년 말씀했어도 반복되는 말씀이 많이 없어요.

하나님이 육신을 쓰고 온거여.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올줄알았는데.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기 주관으로 따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표적이 일어난다.
표적이 뭘까? 표나는 일이지. 표적이 뭐냐?
표적이라는 것은, 역시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하나는 불가능한 것이 일어난다.
이걸 표적으로 봐요. 바닷물 밑물이 멈춰버렸다. 이거 표적이죠.
그런일 우리도 해봤죠? 그거해서 방송국 나왔죠.
그거 누가한지를 모르지. 내가한걸 모르지.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셔 왜? 나 믿으라고.
예수님이 자기를 믿게하기 위해서 여러 표적을 행하셨다.
믿으면 나만믿지 말고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니까
그거 믿고 따라오라고 하는거예요.하나님 작전은 그러하십니다.

생명길로 가는 역사 자체가 표적이지 뭐.
해가 서쪽에서 떴다가 내일은 남쪽에서 뜨는 것 역사보다 낫잖아요.

현실에 보면 예수님 믿어도 별 표가 안나요.
왜? 시원찮게 믿어. 네가 진실로 진실로 나를 사랑하느냐?
진짜진짜 참말참말 양심적으로 정말정말?

예수님께서 안죽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갔어야되는데,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십자가 쳐주고 구원길 열었지.

(중략)

심장 간장내장 콩팥 이런 것이 다 좋아야 무릎도 좋고
한 30대 초반정도 된대.

이와같이 건강하게 살아야 나이먹어도 사는 보람이 있지,
건강치 않으면 사는 보람이 많아요.
어제 지휘 봤죠? 수만개 할 수있어. 수만개.

하나님이 나를 통해 행하시는거여. 하나님의 무한한 세계이죠.
내정신으로 하면 어느새 나는 땅바닥에 기어다니고 있어요.

자! 그건 그렇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이 표적을 ~~굽어~~고 해서 한것입
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표적은 예상에 없는 예상 밖의 일들이다.

어제도 하나님 표적이었어요. 콘서트. 모두 행하는 일이 표적이었죠.
하나님 나타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 행하시고 보여주시고.
내가 행사때마다 좌정한다 그랬죠? 행사때마다 늘 참석해라 그랬죠.

애곡하게 심정타게 외쳐도 모르더라는거예요.

예수님이 심정깊이 비유를 들어서

“장터에서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자와 같이

내가 와서 주가 와서 말씀을 전하고 시대의 슬픔을 표현하고

모든 축복 주려는데 불신하고 안믿고 그러는데, 꼴이 그와같다” 고

성서에 기록해놨지요? 이것을 보면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게 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어제 한 것이 누구의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표적이니라!” 하고 바로 알려줬지요?

내가 베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 쓰고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나는 할 수가 없지.
인간은 한 몸뚱이인데. 성령이 감동주고 하나님 집행하시고 계획해주시고,
모든 사람 행하게 하면서 같이 행하게 된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께 영광돌리며 감사하며 지냈죠.

자, 그리고 이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대를 하나님이 복음을 피고 있다. 이들도 오도록 하시고 계시는구나.
깨달았어요. 이 말씀을 같이 겹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되는데,
나는 스스로 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켜서 하지!
이시대도 나 스스로 할 필요가 없어요. 피곤하.
하나님이 안시켰으면 안해요. 어마어마한 대궐이 있는데. 거기서 쉬지.
왜가? 오늘 성령의 바람이 밀어붙여서 여기 왔어요.

같은 한밥상에 앉아서 밥을 먹으니까 속 얘기를 할게요.
팔뚝이 쭈시고 아파. 그렇게 많이는 안해봤거든.
보통 보면 주일날 한곡 두곡 지휘를 했지요/
그러다가 집중적으로 8곡정도 했지요? 7분짜리가 많아요. 곱하기 해봐.
한시간을 흔들었어. 원청 내가 백만번 백이십만번 해싸서
초인의 팔뚝이 되어서 그렇지, 일반 팔뚝은 어깨 나가게되어있어요.
수천번을 흔들니까.

전야제 예선전 가셔도 흔들었는데 쭈셔서 큰일났어.
근데 갔는데, 양쪽에 불이 와서 그래서 올라갔어.

들어가서 자는데, 어깨수서 못살것다. 주사를 맞든지 해야 안되것다.
역시 사람은 사람이다. 신이 있을땐 안아파요. 근데 떠나면 아파요.
그래야 내가 있으면 안아퍼. 네혼자있으면 아퍼 깨우쳐주거든.
역시 잠자고 시간 가면 낮겠지 이런 마음을 쫓어요.

하나님 시켜서왔지 안시키면 안왔다니까. 내가 왜 사서고생하
명예고 권세고 뭐고 메시아고 뭐고 싫다고 안한다고.
내가 어렸을 때 구했잖아. 예수님 마음을 알았지.
그래서 결국은 너무 할 일이 많고 너무 힘들어서 그만한다니까,
과거에 40년간 것은 지금 역사를 하기위해서 한거여.
한거에다가 조금만 더하면 엄청나다는거예요.
지금은 옛날에 1년에 한거 하루만에도 한다는거예요.

잘되려면 시대 말씀듣고 따라오라.

역사를 따라 가는 자는 계속 역사의 혜택을 받고축복을 받는데, 새 시대
따라가는 자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자요 성령과, 주와 같이 사는자요 성령
과 같이 사는자입니다.

새시대에 따라가야지 현시대에 있으면 발전이 없지요.
뭐든 새것을 원하잖아.여자들 민감한게 많아요.
평생 그집 살겠다고 하것다면서도 결국 또팔고 새집가요.
여러번 옮겨다닙니다. 남자는 죽어나지. 저집보다 이집이 훨씬 헐하고 좋
다고그러한 전술을 가지고 새것을 만드는데, 하나님의 새것은 조금 낫고
그런게 아니라, 완전히 새하늘과 새땅이다!

신약의 하늘과 성약의 하늘도 그러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올줄알았잖아?

예수님이 가면서 내가 다시온다고했거든.

다른사람이 온다면 쳐다도 안봐요.

그러나 한번 가면 다시 이시대는 이시대 역사피기 때문에

이시대 사람 택해서 그를 통해 역사가 가고있어요.

이미 한번 간 것은 부인을 못하는거여. 시대가 가고 역사가 가고있는데.

이것은 한 역사가 가버려.

이것은 하나의 큰 거대한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서 40년동안 온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가고있다는 것을 말해줘야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마지막 시대를 맞고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절대 그 뜻을 이루고 가면 휴거되버려요.

결혼은 사랑으로 이뤄지잖아? 이와같이 휴거의 비밀은 사랑이니라.

미국에서 살려면 영어를 배워야되고

한국에서 살려면 한글을 배워야됩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배워야돼요. 에덴동산 과일 다 가르쳐주고 했어요.

과일 아니예요. 하나님 과일가지고 역사하시나?

인생과일 장사하셔. 자, 그러면 이만치 하고 혹시나 빠진 것 있나 볼게요.